

국어 영역

● [A형]

●●● 화법 ●●●

1. 발표 계획의 적절성 파악 (2점) [정답] ④

발표자가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재담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명언이다.

① 발표의 도입부와 전개부에서는 정보의 전달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정리부에서는 발표자의 제안을 통해 청중을 설득하고 있다.

2.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판단 (3점) [정답] ④

발표자는 학급 독서 프로그램인 ‘아침 독서’에 대해 발표하고 있지만 ‘학급 독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화제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학급 독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은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3.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 파악 (2점) [정답] ⑤

아침 자습 시간의 확보를 의제로 한 토의의 일부이다.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할 문제를 소개하고 토의 내용을 정리하며 개선안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토의에서 사회자인 ‘민아’가 토의 참여자의 모호한 표현을 문제 삼고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③ ‘민아’는 세 번째 발언의 마지막 문장에서 토의 문제의 범위를 조정하려 하고 있다.

4. 토의의 쟁점 파악 (2점) [정답] ⑤

‘일과 시간표 조정을 학교 측에 일임할 것인지 여부’는 토의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학교 측의 반응을 조사할지 여부는 토의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상욱과 시연의 발언에서 설문 조사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쟁점이 형성되었다.

5. 의사소통 상황의 이해 (2점) [정답] ③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드러나 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호가 “정수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소비자로 봐야겠군.”이라고 하여 ‘합리적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자 이에 대해 누나가 “아휴, 요 맹추!”라고 비난함으로써 정호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는 누나가 말하기의 기본 태도인 공손성의 원리를 어감으로써 야기된 사태로 볼 수 있다.

② 정호는 누나로부터 들은 정수기 구매와 합리적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처리하여 인지적 장애를 겪고 있다.

④ 누나는 먼저 ‘심리적 계좌의 오류’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이해시킨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정보 간의 위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작문 ●●●

6. 글쓰기 구상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⑤

주제가 ‘교실 내 오염 물질을 줄여 교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이므로 ‘바-(2)’에서 ‘학교 상수도 수질’은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식 여건’으로 대체해도 마찬가지이므로 ⑤는 적절한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

7.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 (3점) [정답] ④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서술 방향의 전개는, 우선 설문 조사 결과 (1)을 통해 교과서 물

려주기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임을 밝히고,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 학생들이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사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행사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즉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제시한다.

신유림

8. 조건에 따른 내용 표현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⑤

‘설문 조사 결과’의 (3)-ㄴ에 응답한 학생들은 다 쓴 교과서를 학교에 가져오기 귀찮아하는 학생이다. ⑤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잠시의 수고로움을 참으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과서 물려주기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후배들에겐 보석이 됩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어떨까요?’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① 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설의법도 쓰였지만, 비유법은 쓰이지 않았다.

② 비유법은 쓰였지만, 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설의법도 쓰이지 않았다.

③ 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고 비유법도 쓰였지만, 설의법은 쓰이지 않았다.

④ 설의법과 비유법이 쓰였지만 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9. 글쓰기 전략의 파악 (2점) [정답] ①

과제 수행 기록을 토대로 학생이 글을 작성하는 데 활용한 전략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그런데 과제 수행 기록 어디에도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 구사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

10.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⑤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거나,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으로 문맥에 맞지 않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제시한 ‘칼로 물 베듯’도 부적절하다. ‘칼로 물 베듯’은 다투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 곧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으로 문맥에 맞지 않다. 이 글의 흐름상, ㄱ은 지나치게 남용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휘두르듯’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전가의 보도’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칼’이라는 뜻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① ㉠은 ‘드라마에서 기억 상실증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의 이유이므로 ‘크기 때문이다’와 같이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은 비슷한 어구가 반복되어 어색하므로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에는 앞 문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기능을 하는 접속사어 ‘따라서’가 적절하다.

●●● 문법 ●●●

11.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 (2점) [정답] ②

b의 두 가지 예는 모두 어미의 자음에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이므로 ②는 잘못된 탐구이다. b를 통해서는 동화되는 자음이 동화시키는 자음과 같아지는 완전 동화(닿는[닫는]), 다른 자음으로 되는 불완전 동화(잡는[잠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a는 앞 자음이 뒤 자음에 영향을 주어 동화가 일어나는 순행 동화(달나라달라라), 뒤 자음이 앞 자음에 영향을 주어 동화가 일어나는 역행 동화(국물[궁물])를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③ c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자음을 닮는 동화 외에,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모두 바뀌는 상호 동화(격리[경니])도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④ d는 바로 인접한 자음의 자질에 동화되는 직접 동화(칼날[칼랄]), 떨어져 있는 자음의 자질에 동화되는 간접 동화(않는[알른])를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⑤ e는 ‘ㄴ’과 ‘ㄹ’이 인접해 있을 때 앞의 ‘ㄴ’이 유음 ‘ㄹ’로 변하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예이다. 이때 ‘신라[신나], 곤란[곤난]’과 같이 동화의 방향을 잘못 적용하여 발음하는 것은 옳지 않다.

12. 단어의 형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 (2점) [정답] ④

‘부채질’은 명사 어근 ‘부채’에 접미사 ‘-질’이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그러나 ‘부채질’ 역시 명사이므로 접미사 ‘-질’에 의해 품사 변화가 일어난 예는 아니다. 이 경우에는 접미사가 품사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어근에 의미만 첨가해 준 것이다.

① ‘먹이’는 동사 어근 ‘먹-’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 ‘먹이’로 품사 변화가 일어난 예이다.

② ‘높이’는 형용사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 ‘높이’로 품사 변화가 일어난 예이다.

③ ‘힘껏’은 명사 어근 ‘힘’에 접미사 ‘-껏’이 붙어 부사 ‘힘껏’으로 품사 변화가 일어난 예이다.

⑤ ‘크기’는 형용사 어근 ‘크-’에 접미사 ‘-기’가 붙어 명사 ‘크기’로 품사 변화가 일어난 예이다.

13. 품사의 구별 (2점) [정답] ⑤

ㄱ에서 앞 문장의 ‘저런’은 관형사이고, 뒤 문장의 ‘저리’는 부사이다.

① ㄱ에서 앞 문장의 ‘그’는 대명사, 뒤 문장의 ‘그’는 관형사이다.

② ㄴ에서 앞 문장의 ‘무엇’은 대명사, 뒤 문장의 ‘무슨’은 관형사이다.

③ ㄷ에서 앞 문장의 ‘온갖’은 관형사, 뒤 문장의 ‘온통’은 부사이다.

④ ㄹ에서 앞 문장의 ‘어떤’은 관형사, 뒤 문장의 ‘어떤지’는 형용사 ‘어떻다’의 활용형이다.

14. 피동 표현에 대한 이해 (2점) [정답] ①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의 경우 야간 자율 학습을 폐지한 행위의 주체인 ‘○○교육청’이 제목에 직접 드러나 있지만,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 경우 그 주체가 제목에 드러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를 감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5. 홀문장과 겹문장에 대한 이해 (3점) [정답] 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은 ‘겹문장’을 의미한다.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이다. 겹문장인 ㉡, ㉢, ㉣ 중 ‘이어진문장’(홀문장과 홀문장이 이어져 있는 문장)은 ㉢과 ㉣이다. ㉡는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이어진문장 중 홀문장과 홀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것은 대등적 연결어미 ‘-고’가 사용된 ㉢이다. 그리고 ㉢은 홀문장과 홀문장의 의미 관계가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문장에 속한다(㉣). 그러므로 ㉠과 ㉡에 각각 들어갈 문장은 ㉡와 ㉢이 된다.

●●● 독서 ●●●

[16~18]

김월희, 「동서양의 인문 교육과 고전 읽기 9 –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해한다」

16. 집필 의도의 파악 (2점) [정답] ①

이 글은 경전 공부보다 마음공부를 우선시한 왕양명의 학문적 특징을 주희의 학문에 견주어 설명한 글이다. 왕양명에게는 학문의 시발점이 마음공부였으며, 또한 마음공부는 그의 삶에서 실천적 과제이기도 했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이 글

을 쓴 것은 왕양명의 학문적 특징을 이해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정보 간의 관계 파악 (2점) [정답] ④

경전 공부를 해야 양지와 양능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양지와 양능을 선천적인 것이라고 본 것은 왕양명의 학문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는데, 그가 경전 공부를 통해 그 점을 알아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18. 관점에 대한 추론의 적절성 파악 (3점) [정답] ④

왕양명은 객관 사물을 ‘나’의 마음과 연계된 것으로 보기는 했으나 사물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객관 사물의 온전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은 ‘나’의 비뚤어진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을 바로잡는 마음공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로 미루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외부의 사물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지와 양능은 가만히 있어도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고 망각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마지막 문단의 설명도 이런 추리를 뒷받침한다.

[19~21]

반효경, 「운영 체제의 자원 관리 기능」

19. 추론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④

4문단의 내용을 보면, 요구 페이지에서 특정 페이지는 CPU의 요청이 있어야 메모리에 해당 페이지를 적재한다. 즉, 스왑 영역에 있는 프로그램의 새로운 페이지가 메모리에 적재되려면 물리적 메모리의 요청이 아니라 CPU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⑤ 2문단을 보면, 고정 분할 방식은 물리적 메모리를 영구적으로 몇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이므로 물리적 메모리에 동시에 적재될 수 있는 최대 프로그램 수는 분할된 영역의 수와 같을 수밖에 없다.

20.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점) [정답] ③

〈보기〉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A]의 고정 분할 방식이다. 컴퓨터의 메모리를 이미 50, 70, 120 등으로 분할했으며, 물리적 메모리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이 적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적재되어 실행되는 각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 A가 실행되는 영역에서는 10, B와 C가 실행되는 영역에서는 20의 내부 조각이 발생한다.

21. 다른 사례에의 적용 (2점) [정답] ③

㉠은 보조 기억 장치의 영역으로, 나중에 쓸 식재료나 주방 기구를 두는 ‘식탁’과 유사하다. ‘식탁’은 당장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 외에 나머지를 저장해 두는 스왑 영역과 유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짝 지으면 ‘조리대’는 ‘메모리’(㉡)와, 조리대 위에 올려놓는 ‘우선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와 주방 기구’는 ‘당장 사용되는 페이지’(㉢)와 대응된다.

[22~24]

임중훈, 「한국입법과정론」

22. 글의 서술 방식 이해 (2점) [정답] ④

이 글에서는 ‘소수의 횡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③ 2문단에서 ‘소수의 횡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거래 비용’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소수의 횡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23.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점) [정답] ⑤

‘소수의 횡포’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관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것을 감내함으로써 그 비용이 널리 분산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보기〉의 사례에서도 법안 입법 후에 노조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은 국민 다수에게 널리 분산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4. 추론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①

‘소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 집단이 법률의 심의 과정에 관여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①에 제시된 ‘전문가 집단’은 공동의 이익을 가진 소수 집단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소수의 횡포를 막는 방안이 되기 어렵다.

[25~28]

이기영, 「물 이야기」

25. 세부 내용의 파악 (2점) [정답] ⑤

빙하의 아랫부분은 빙하의 윗부분으로부터 받는 압력으로 인해 표면의 어는점이 낮아져 부분적으로 녹게 된다. 이에 따르면, 같은 온도의 조건일 경우 무게가 가벼운 빙하보다 무게가 무거운 빙하의 아래 표면이 더 쉽게 녹는다. 따라서 무게가 무거운 빙하가 가벼운 빙하와 달리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6.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점) [정답] ③

물은 밀도가 가장 높은 4℃일 때 가장 무겁다. 따라서 4℃의 물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물의 온도가 0~4℃일 경우, 바닥에 가까울수록 4℃에 가깝고 위로 올라갈수록 물의 온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바닥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의 몸무게에 의한 압력은 스케이트의 날을 거쳐 얼음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스케이트 날이 얼음과 닿는 부분은 어는점이 낮아지게 된다. ④ 물이나 물의 고체 상태인 얼음은 모두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면 외부의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⑤ 물의 온도가 0~4℃일 경우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데, 얼음 결정의 형성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분자 운동의 감소에 따라 부피가 감소하는 정도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부피는 늘어나게 된다.

27. 추론의 적절성 평가 (2점) [정답] ①

이 글과 〈보기〉에 의하면 고체 상태인 얼음은 빈 공간이 많은 입체 육각형의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 결정 구조가 깨지면서 얼음이 녹을 수 있다. 따라서 얼음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 액체 상태의 물로 녹으면서 어는점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얼음이 녹으면 그 이전보다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맞지만, 부피의 감소가 어는점을 낮게 하는 것은 아니다.

28. 어미의 용법 이해 (2점) [정답] ⑤

㉠의 경우 ‘-ㄴ데’ 앞에서 일반적인 비열을 미리 말한 뒤에 뒤 절인 ‘물의 비열은 ~ 훨씬 크다.’에서 비열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다. ⑤도 이와 마찬가지로, ‘-ㄴ데’의 뒤 절인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는 앞에서 언급한 고향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①, ④ ‘-ㄴ데’의 뒤 절은 시킴의 뜻을 담고 있다. ② ‘-ㄴ데’의 뒤 절은 제안의 뜻을 담고 있다.

③ ‘-ㄴ데’의 뒤 절은 물음의 뜻을 담고 있다.

[29~30]

독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29. 독서 활동 점검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③

학생은 ‘읽기 중’ 활동에서 ‘고준위’라는 단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은 ‘과학책’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마련했는가?’에 대한 점검은 ‘그렇다’에 표시되어야 적절하다.

30. 독서 활동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③

㉠에 대해 조언할 내용으로는 읽은 글에서 기피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인과 관계로 정리하여 살피는 활동을 조언해 줄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갈등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평가 기준을 통해 글을 다시 읽어 보는 활동은 문제와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학 ●●●

[31~34]

작자 미상, 「김원전」

31. 서술상의 특징 파악 (2점) [정답] ④

주동 인물(주인공)인 김원이 지하국에 잠입하여 아귀를 죽이기까지 그 성격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② 주동 인물인 김원과 반동 인물인 아귀 사이의 대결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김원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장면에서 반동 인물인 아귀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도록 묘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32. 자료를 통한 작품 감상 (2점) [정답] ⑤

공간 ㉠은 지하국 내 대아문 밖의 공간이고, 공간 ㉡는 아귀의 궁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의 작은 왕국 같은 장소이다. 공간 ㉢로 들어온 김원은 협실, 후원, 아귀가 자는 방 등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이것은 아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지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33. 말하기 방식의 특징 이해 (2점) [정답] ⑤

㉠에서 공주는 “장군의 재주가 어떠한지 모르나 저놈의 조화가 무궁하니 어찌 제어하리오?”라고 말하며 아귀에 맞서는 김원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공주는 문졸이 몸을 뒤지려 하자 먼저 치마를 떨치며 ㉡와 같이 말하는데, 이것은 수문장과 문졸을 속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② ㉠과 ㉡에서 설의적 표현은 찾을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은 수문장이나 문졸 외에 변신한 김원도 청자로 상정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은 김원만을 청자로 상정한 것이다.

34.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의 파악 (2점) [정답] ②

공주는 원수의 칼과 아귀의 칼을 비교하며 무기의 기능까지 세심하게 살피 아귀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와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꼼꼼히 마음을 써서 일에 빈틈이 없음.’을 뜻하는 ‘용의주도’가 적절하다. ① 연목구어 :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자포자기: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④ 적반하장: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 ⑤ 좌충우돌: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일이나 함부로 맞닥뜨림을 이르는 말.

【35~37】
채만식, 「미스터 방」

35. 서술상의 특징 파악 (3점) [정답] ⑤
[A]의 앞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백 주사가 현재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A]에서는 백 주사가 방삼복을 보고 느낀 점을 서술하고 있다. 즉, [A]는 백 주사의 시선을 통해 방삼복이라는 인물이 조명되고 있는 부분이다.

36. 인물 행위의 의미 파악 (2점) [정답] ④
㉠의 앞에서, 방삼복의 말을 들은 백 주사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간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백 주사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간 사람들을 혼내 주고 빼앗긴 재산을 찾아 준다는 방삼복의 장담을 믿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백 주사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에 보잘것없던 인물인 삼복에게도 머리를 숙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2점) [정답] ②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판하려고 한 대상은 행운으로 부자가 된 이들이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여 부를 누리던 ‘방삼복’과 같은 부정적인 인물이다.
④ 소위에게 얻어맞는 방삼복을 통해, 권력에 기생하여 얻은 권력은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⑤ 일제로 인해 부를 축적했던 백 주사가 몰락하고, 과거에 보잘것없던 방삼복이 미군으로 인해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은 당시가 역사적 격변기였기 때문이다.

【38~39】
(가) 허난설헌, 「규원가」
(나) 홍량, 「뫼버들 가려 꺾어~」

38.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2점) [정답] ④
(가)에서 화자는 임(남편)의 소식을 모른 채 애태우거나 입을 기다리며 보낸 나날들을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화자가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가)의 ‘매화, 자취눈, 굶은비’, (나)의 ‘뫼버들, 새 잎’ 등이 해당한다.

39. 시어에 대한 이해 (2점) [정답] ⑤
‘밤비’는 화자가 임에게 보내는 ‘뫼버들’을 깨닫하고 새롭게 만드는 소재이며, 화자의 애상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화자는 이별을 인식하고 임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밤비’가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경물(景物)이 시름 일다’는 아름다운 풍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화자는 임과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흥겨움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② ‘별학’은 녹기금 소리를 통해 임과 헤어진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40~42】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40. 표현상 특징의 파악 (2점) [정답] ①
이 작품에서는 타향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가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태도의 전환을 통해 시상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아버지의 삶과 관련된 회상이 일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나타나 있지 않다.

41. 감상의 적절성 파악 (3점) [정답] ④
‘풀벌레 소리’를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로 보았을 때, ‘가득 차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물질적인 결핍으로 인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부각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 시의 맥락이나 화자의 정서 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①, ② ‘풀벌레 소리’를 ‘시적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으로 보았을 때, ‘풀벌레 소리’는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화자의 슬픔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득 차 있었다’라는 표현은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③ ‘풀벌레 소리’를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로 보았을 때,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침통한 분위기와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42. 시구 해석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④
‘의원’이나 ‘이웃 늙은이’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타향에서 숨을 거둔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는 이웃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을 주위 사람들의 냉혹한 시선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우리 집도 아닌 곳’,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 등으로 공간적 배경이 점층적으로 나열되면서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의 비극적 상황이 부각되었다.
② ‘아무물 만의 파선’이나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고달픈 삶의 과정을 보여 주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3~45】
오영진, 「맹 진사 댁 경사」

43. 작품의 특징 파악 (3점) [정답] ②
세도 가문과의 혼인 약속을 성사시키고 와서 위세를 부리는 ‘맹 진사’에 대해 ‘한씨’와 ‘유모’가 그를 추켜세우면서도 비꼬듯이 말을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 해학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신랑이 절름발이인 줄 알고 ‘갑분이’ 대신 ‘임분이’를 시집보내려고 계획을 꾸몄는데 정작 신랑이 멀쩡한 사람임이 밝혀지는 극적 반전이 나타남으로써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며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ㄴ. ‘참봉’이 신랑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랑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ㄹ. 이 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44. 대사와 지문의 이해 (2점) [정답] ④
㉠에 이어지는 내용은 신랑이 절름발이인 줄로 알고 있던 ‘길보’가 신행을 온 일행 중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자 신랑이 없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은 신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변을 보고하기 위해 서두르는 행동일 뿐이므로, ‘맹 진사’가 낭패를 당한 데 대해 ‘길보’가 내심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맹 진사’가 돈으로 벼슬을 사서 행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⑤ ‘참봉’은 절름발이라던 신랑이 사실은 늙름한 풍채의 멀쩡한 모습으로 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맹 진사’에게 그 사실을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상황에 빗대어 전하고 있다.

45. 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2점) [정답] ②
[A]에서는 소문과는 달리 신랑이 절름발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신랑 역을 맡은 인물이 절름발이처럼 절뚝거리며 들어오는 연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맹 진사’는 양반이면서도 자신의 업적을 내세워 집안사람들에게 위세를 부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진중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 역을 맡은 배우는 경박한 양반의 모습으로 행동해야 적절할 것이다.
⑤ ‘맹 진사’와 그 주변 인물들은 사랑채에 들어 있고 사랑채 바깥의 마당으로 이제 막 신랑 측 사람들이 들어서는 장면이다. 따라서 무대에는 사랑방과 마당의 두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는 인물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B형]
.....
..... ● ● ● 화법 ● ● ●

1.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평가 (2점) [정답] ③
찬성 1의 입론에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시행과 관련된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① 논제와 관련한 핵심 개념인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6시 사이에 네트워크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임을 밝히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④ 찬성 1의 입론에서 제시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의 심각성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시행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2. 토론의 내용 파악 (3점) [정답] ③
찬성 측에서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반대 측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청소년 게임 중독의 문제를 막기 위한 사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반대 측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언급하며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의 원인을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찬성 측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3.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⑤
〈보기〉에서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해외 수출액을 제시하며 게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할 경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을 할 수 있다.

<div>4. A형 3번과 동일</div> <div>(2점) [정답] ⑤</div>	
<div>5. A형 4번과 동일</div> <div>(2점) [정답] ⑤</div>	
<div>●●● 작문 ●●●</div>	
<div>6.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div> <div>(2점) [정답] ③</div> <div>〈보기 1〉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시생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본론 1의 다음에 올 내용이다. 서론에서 원인을 제시 하고 본론에서 부족한 실태를 제시하는 것은 논리 전 개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div>	
<div>7. 자료 분석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div> <div>(2점) [정답] ④</div> <div>[자료 3]에서는 적절한 체육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를 말하고 있다. 〈보기 1〉의 학생의 계획에 따르면, 이 자료는 본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div> <div>⑤ [자료 1]에서 입시생들의 체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2]에서 체육 활동 불참의 주된 이유가 공부할 시간의 확보로 나타나 있으므로, 두 자료를 통합하면 ⑤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div>	
<div>신유형</div> <div>8. 요약의 전략 파악</div> <div>(3점) [정답] ⑤</div> <div>원문과 ‘현우’의 요약문을 비교해 볼 때, 원문에 나타난 논지의 흐름과 순서는 요약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문에서는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동물 실험에 찬성한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요약문에서도 이와 같은 논지의 흐름이 원문의 순서에 따라 요약되었다.</div> <div>① 애원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애원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내용은 이 글의 핵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약문에서는 생략되었다.</div> <div>② ‘찬성하는 사람들’을 ‘옹호론자들’로, ‘위험한’을 ‘치명적인’으로 바꾸는 등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구성하였다.</div> <div>③ 원문의 ‘유전 독성, 면역 독성, 생식 독성’ 등을 관찰해야 하는,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을 ‘치명적인 독성 실험’으로, ‘컴퓨터, 촬영 기술, 데이터 분석 등 관련 분야를 ‘과학 기술’로 일반화하여 요약하였다.</div> <div>④ 요약문에서는 ‘그것’이나 ‘그들’의 지시어, ‘또한’이라는 접속어 등을 사용하여 글의 응집성을 살리고자 하였다.</div>	
<div>9. A형 9번과 동일</div> <div>(2점) [정답] ①</div>	
<div>10. A형 10번과 동일</div> <div>(2점) [정답] ⑤</div>	
<div>●●● 문법 ●●●</div>	
<div>11. 표준 발음법의 적용</div> <div>(2점) [정답] ③</div> <div>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에서는 겹받침 ‘ㄲ’, ‘ㄷ’, ‘ㄹ’, ‘ㄴ’, ‘ㄷ’,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ㄴ]으로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ㄴ’은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하고, ‘ㄴ’은 ‘ㄴ’-축하다[넙쭈카다], ㄴ-동글다[넙똥글다]와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은 ‘넙지[넙찌]’, ㉡은 ‘넙지[넙찌]’가 맞다.</div>	
<div>12. 한글 맞춤법의 이해</div> <div>(3점) [정답] ①</div> <div>‘연구하도록’의 준말은 ‘연구토록’으로,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없어지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 ‘ㄷ’과 어울려 거센소리 ‘ㅌ’으로 바뀐다. ‘흔하게’의 준말은 ‘흔케’로,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없어지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 ‘ㄱ’과 어울려 거센소리 ‘ㅋ’으로 바뀐다. 따라서 ㉢와 ㉣는 ㉠의 예</div>	
<div>로 타당하다. 그러나 ㉢와 ㉣는 제시된 탐구 과정의 내용과는 달리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준 경우에 해당하여 ‘거북하지 → 거북지’,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일반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div>	
<div>13. 문장 표현의 적절성 판단</div> <div>(2점) [정답] ②</div> <div>ㄴ의 ‘놓여졌다’는 ‘놓-+-이-+-어지-+-었-+-다’로 분석되는데, ‘-이-’와 ‘-어지-’는 모두 피동 표현으로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고친 ‘놓이게 되었다’도 이중 피동 표현이다. ‘놓였다’로 고쳐야 바르다.</div> <div>① ㄱ에서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는 조사이다. 따라서 ‘화분’ 뒤에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div> <div>③ ㄷ은 그가 신발을 신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와 그가 신발을 신는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의적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는 신발을 신는 중이다’ 또는 ‘그는 신발을 신은 상태이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div> <div>④ ㄹ에서 ‘키가 큰’은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지 모호하므로, ‘키가 180cm 이상인’과 같이 구체화해야 의미가 명확해진다.</div> <div>⑤ ㅁ에서 주어인 ‘문제는’과 서술어인 ‘학생이다’가 호응을 하지 못하므로, 서술어를 ‘학생이라는 점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div>	
<div>신유형</div> <div>14. 근대 국어에 대한 이해</div> <div>(2점) [정답] ①</div> <div>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으로, ‘굳이’가 [구지]로, ‘굳히다’가 [구치다]로 되는 것 따위를 말한다. ㉠의 ‘대대(→ 대저)’와 ㉡의 ‘던기선(→ 전기선)’에서는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div> <div>② ㉢에서는 ‘썩름을’과 같이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썩름’과 같이 소리가 나는 대로 이어 적고 있고, ㉣에서는 ‘넛저게’와 같이 소리가 나는 대로 이어 적지 않고 ‘넛저’로 형태를 밝혀 적고 있다.</div> <div>③ ㉤의 ‘썩’, ㉥의 ‘ㅈ’을 통해 현대에 쓰이지 않는 어두 자음군(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써서 만든 글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div> <div>④ ㉦에서 ‘넛’을 ‘넛’으로 적지 않은 것, ㉧에서 ‘리’를 ‘이’로 적지 않은 것을 통해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div> <div>⑤ ㉨에서 ‘썩’을 ‘적’으로 적지 않은 것, ㉩에서 ‘던’을 ‘던’으로 적지 않은 것을 통해 ‘ㄴ’의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div>	
<div>15. A형 14번과 동일</div> <div>(2점) [정답] ①</div>	
<div>16. A형 15번과 동일</div> <div>(2점) [정답] ①</div>	
<div>●●● 독서 ●●●</div>	
<div>[17~19]</div> <div>김기현, 「과연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는 것일까?」</div>	
<div>17. 글의 전개 방식 파악</div> <div>(2점) [정답] ④</div> <div>1문단에서 일반적인 통념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div> <div>① 5문단의 ‘월에 대한 기하학적인 참은~의존할 수 없다.’, 6문단의 ‘한 생물체의 종은~생각한 것이다.’는 모두 사례를 들어 설명을 구체화한 부분이다.</div>	
<div>⑤ 3문단에서 보편자에 대한 ‘실재론’과 ‘유명론’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며, 4문단에서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공통점, ‘개념주의’와의 차이점을, 5문단에서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div>	
<div>18. 다른 사례에의 적용</div> <div>(3점) [정답] ④</div> <div>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라는 보편자가 항상 실재한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개념주의자는 정신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모두 사라진다면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남성’이라는 보편자가 항상 실재한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div>	
<div>19. 새로운 내용의 추론</div> <div>(2점) [정답] ②</div> <div>제시된 글과 〈보기 1〉의 설명에 따를 때, ‘오감’은 유명론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 2〉에서 유명론자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된다. 제시된 글의 ‘유명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개별자들뿐이고 보편자는 이름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라는 내용과 〈보기 1〉의 ‘오감은 존재하지도 않는 보편자를 통하여 개별자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보았다.’라는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ㄴ과 ㄷ이 오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6문단에서 보편자를 내재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임을 알 수 있다(ㄱ). 그리고 5문단에서 보편자가 그를 예화하는 개별자들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은 플라톤주의임을 알 수 있다(ㄷ). 아리스토텔레스주의나 플라톤주의는 모두 실재론과 관련이 있으므로 ㄱ과 ㄷ은 ‘오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div>	
<div>[20~22]</div> <div>그로비스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 김영환 역, 「협상의 유형」</div>	
<div>20. 개괄적 정보의 파악</div> <div>(2점) [정답] ⑤</div> <div>마지막 문단에서는 협상자의 힘에 의한 분류가 제시되어 있는데, 협상자의 힘이 대등한지 여부에 따라 대칭 협상과 비대칭 협상으로 나누고 있다. 비대칭 협상에서 약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협상자들 간의 힘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다.</div>	
<div>21.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div> <div>(3점) [정답] ④</div> <div>ㄱ은 협상의 쟁점에 따라 분류할 때 연봉과 인센티브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과 인센티브를 통해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얻어 내는 협상이 가능하므로 복수 쟁점 협상에 해당한다. ㄴ은 협상 담당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층적 협상에 해당한다. ㄷ은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중고차 매매업자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자의 힘이 대등하지 않다. 따라서 비대칭 협상에 해당한다.</div>	
<div>22. 내용 이해의 적절성 평가</div> <div>(2점) [정답] ⑤</div> <div>ㄷ에서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 거래와 관련하여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자가 아니라 강자에 해당한다. 자신의 최저 타협선을 인식해야 할 대상은 매매업자가 아니라 매입자이다.</div> <div>① ㄱ은 복수 쟁점 협상이기 때문에 한 개의 쟁점을 양보하는 대신 다른 쟁점을 얻어 내는 등 상대방과 협조하여 상호 타협점을 찾아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div> <div>② ㄱ에서 프로 야구 선수가 특정 금액을 연봉으로 고집하고 구단 역시 또 다른 금액을 연봉으로 고집한다면 각 측이 고집하는 금액이 서로의 최저 타협선이 된다.</div>	

23. A형 25번과 동일(2점) [정답] ⑤

24. A형 26번과 동일(3점) [정답] ③

25. A형 27번과 동일(2점) [정답] ①

26. A형 28번과 동일(2점) [정답] ⑤

[27~28]

홍대용, 「철교에게 주는 편지 1, 2」

27. 글쓴이의 인식에 대한 이해(2점) [정답] ②
(가)와 (나)에서 글쓴이는 책을 읽고 거기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현실의 삶에 유용하도록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책을 읽는 것에서 독서가 끝난다고 보지 않고 실천에 이르러야 독서가 완성된다고 한 ②가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잘 통하는 글언이라고 할 수 있다.

28. 독서 활동 계획의 적절성 판단(2점) [정답] ⑤
⑦과 ㉠은 모두 책을 읽기만 하고 거기서 깨우친 바를 현실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공감하였다면 ⑤와 같이 자신의 생활에의 적용을 모색하는 태도를 ‘읽기 후 활동’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독서 활동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9~30]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29. 글의 논지 파악(2점) [정답] ③
이 글에서는 ‘상사의 놀이’를 마그리트와 앤디 워홀의 예술적 특징으로 파악한 후, 그 예술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④ ‘동일성’이란 원본과 복제의 닮음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상사의 놀이’와는 거리가 멀다.
⑤ 이 글에서는 현대 미술가인 워홀이 상사의 원리를 추구한다고 하였으므로, 유사의 원리에 입각한 현대 예술의 특징이라는 진술은 지문과 부합하지 않는다.

30. 다른 작품에 대한 적용(2점) [정답] ②
앤디 워홀은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할 때 얻어지는 효과를 추구하면서 원본과의 일치를 중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존 인물의 본질적 모습을 구현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① 1문단에 따르면, 상사의 놀이에서 사본들 간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워홀은 사본들 간의 미세한 차이로 자신의 예술적 의도를 드러내는 기법을 구사하였다.

●●● 문학 ●●●

[31~34]

김훈, 「남한산성」

이 소설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청에 끝까지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과 청과 화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고, 임금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 작품에는 이렇게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인물들의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31. 서술상의 특징 파악(3점) [정답] ②
[A]의 중심 사건은 용골대의 군사들이 남한산성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B]는 남한산성 안의

서장대에서 [A]의 사건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A]와 [B]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A]는 남한산성 밖에서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B]는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A]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B]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A]에서 발생한 사건의 전모까지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B]는 특정 공간에서 바라본 모습을 서술하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32. 인물의 특성 파악(2점) [정답] ③
임금은 청과 맞서 싸우자는 김상헌과 청과 화친하자는 최명길의 주장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다. 임금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김류를 바라보지만, 김류는 책임이 두려워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다만 상황의 위급성만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작품 속의 임금은 위기의 상황임에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33. 인물의 대화에 담긴 의미 파악(2점) [정답] ③
김상헌은 우리의 길은 항전(抗戰)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명길은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는 화친의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은 싸움을 선택하는 것도 길이지만 굳이 그 길만 고집할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① 군사를 활용하는 전략의 책임은 장수에게 있다는 뜻으로, 용골대가 세운 전략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② 이시백은 적의 주력이 다가오는 위기 상황이 보이나, 김상헌이 말한 길, 즉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④ 칸이 사신을 보내지 않고 불쑥 찾아온 것은 국가 간의 예를 어긴 것으로, 이런 칸에게 문서를 보내어 예를 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⑤ 칸이 왔다면 공세가 강화될 것이므로 더 이상 성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4. 인물의 심리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2점) [정답] ①
최명길은 임금에게 지금이 청에게 화친을 제의할 좋은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화친은 칸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만약 지금 성 밖에 있는 칸과 화친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명길은 임금이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즉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백년하청 :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③ 염량세태 :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자가당착 :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을 이르는 말.
⑤ 천려일실 :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

35. A형 38번과 동일(2점) [정답] ④

36. A형 39번과 동일(2점) [정답] ⑤

37. A형 43번과 동일(3점) [정답] ②

38. A형 44번과 동일(2점) [정답] ④

39. A형 45번과 동일(2점) [정답] ②

[40~42]

신광한, 「하생기우전」

40. 세부 정보의 확인(2점) [정답] ⑤
“전생에 이미 서방님과 부부였고, 현생 또한 그러한데, 내생에는 어찌될지 모르겠군요.”라는 여인의 말로 볼 때, 두 사람은 삼생에 걸쳐 부부가 된 것은 아니다.

41. 외적 준거에 의한 인물의 이해(3점) [정답] ②
여인은 지난날 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아버지(시중)의 죄로 인한 재앙 때문에 죽어서 이계로 갔다가, 아버지가 큰 옥사(獄事)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해 준 일로 용서받아 하생에 의해 현실계로 돌아온 인물이다. 즉, 아버지의 복선화음의 결과에 따라 이계로 갔다가 다시 현실계로 돌아오게 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① 여인은 옥황상제의 결정에 따라 이계에서 현실계로 돌아오는 것이지,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아니다.

42. 작중 시가의 내용 및 기능 파악(2점) [정답] ①
[A]의 ‘이리 될 줄 알았다면 / ~ / 그와 손잡고 함께 갈까 해요.’는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면서 자결하겠다는 의사를 암시하는 것이다.
② [A]의 ‘기러기’는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B]에는 감정 이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43~45]

(가) 김춘수, 「분수」
(나) 최승호, 「복어」

43. 작품들 간의 공통점 파악(2점) [정답] ②
(가)는 떨어져서 부서질 것을 알면서도 솟으려 애쓰는 ‘분수’의 속성에서, (나)는 막대기처럼 생명성을 잃고 켜어져 있는 ‘복어’의 속성에서 시의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가)의 ‘분수’와 (나)의 ‘복어’는 모두 작품 속에서 의인화되어 있다.
① (가)의 ‘분수’는 자연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가)는 자연과 인간이 대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에서 현재형의 시제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각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44.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감상(3점) [정답] ④
㉠의 ‘선연(鮮然)한 무지개’는 떨어져서 부서질 것을 알면서도 하늘로 솟아오르는 분수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은 의미상 ‘보기’의 ‘비극적 아름다움’과 가장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5. 감상의 적절성 판단(2점) [정답] ④
[D]는 생명성을 잃고 켜어져 있는 복어를 보면서 복어처럼 생명성과 비판 정신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린 장면이다. 이것은 앞에서 이루어진 화자의 인식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므로, 상반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복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식료품 가게에서 화자가 인식한 ‘복어’에 독자들도 함께 주목하게 된다.
②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복어의 모습을 묘사한 후, 그것들이 생명성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③ 생명성을 잃은 ‘복어’를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연결하여 비판 의식을 상실한 현대인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⑤ ‘거봐,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를 통해 비판의 주체였던 화자 자신이 비판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